창원불자들 설 앞둔 자비나눔 눈길

창원시불교聯 자비나눔

32년간 소외계층 돕기 나서
한마음병원 이사장 1억 기부
창원 5개권역 3천만원 전달
모범청소년, 시각장애인 도와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케익커팅을 하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1월 25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호텔에서 제32회 자비나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장인 불지사 정인 스님을 비롯해 봉원사 지태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정법사 광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 성주사 김이순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과 함께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회장 정인 스님의 봉행사, 후원내역 공개, 성금 전달,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1억 기부 약정식, 상임고문 지태 스님의 격려사, 허성무 창원시장 축사, 하례회, 축가 축원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임인년 인내심의 결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며 "사바세계 공동체 근본은 자비심과 베품의 마음이다. 나눔을 함께 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좋은날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 스님은 "32년간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주신 창원불교연합회 스님들과 금강자비회원,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선한마음으로 이웃나눔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상임고문 지태 스님은 "부처님세계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든 것이 불성으로 하나"라며 "자비나눔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자"고 서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불교사암연합회와 금강자비회에서 매년 설을 앞두고 자비나눔 행사를 펼쳐줘 감사하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 실천과 이웃을 위한 행보는 우리의 삶에 소복소복 내린 눈처럼 따뜻한 일상을 선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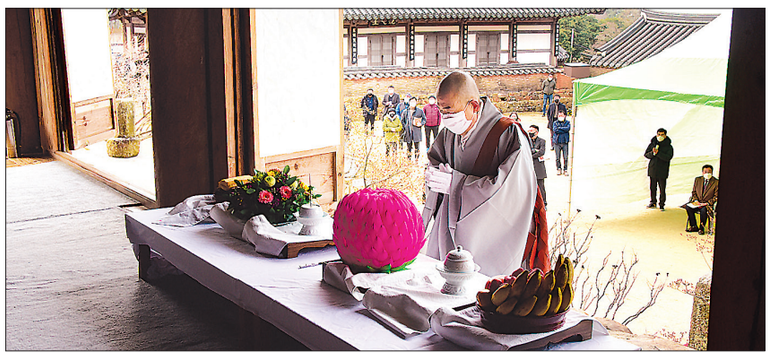
이날 1억원을 기부 약정한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은 "신심깊은 부모님 덕분에 오늘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 한부모 가정 등에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원 성금은 창원시 5개 권역별 추천받은 한부모가정 30가구에 각각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전달됐다. 또 고등학교, 청소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모범 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 총 150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노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협회에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전달됐다. 또 심산서울병원, 창원시공무원불자회, 사찰 신도회 등이 후원한 가래떡 및 삼겹살 등이 저소득가정에 전달됐다.

미황사 대웅보전, 1000일 휴식 들어가다

해체보수불사 고불식 봉행

부자재침식, 보존 필요해
전면해체 수리 방침 결정
3년 해체 불사 진행 예정


해체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대웅보전에 헌화를 하는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 대웅전의 해체보수공사가 진행된다. 미황사(주지 향문)는 1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대웅보전 - 천일의 휴식' 이름으로 대웅보전 해체보수불사 고불식을 갖고 3년간의 해체보수공사에 들어간다.

보물 947호인 미황사 대웅전은 달마산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조선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행사에는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해 대흥사 대중스님들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재갑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유명식 미황사 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고불의식과 명종에 이어 불교의례 육법공양(초의차보존회), 고불문, 기념식과 축사, 법어(보선스님), 발원문, 사홍서원이 이어졌다. 대웅보전은 2010년부터 정밀 실측조사를 통해 일부 건물 부자재의 침식이 진행돼 건물 보존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또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웅전 내 · 외부 벽화와 단청에 대한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해체보수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게 됐다.

법상 스님도 "천 일간의 불사는 눈에 보이는 법당의 보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닌, 처음 창건하였던 선사들의 마음을 이어 중건과 보존에 힘써왔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후세에 오롯하게 전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황사 대웅보전은 지난 749년 창건과 더불어 신축되었으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것을 1597년부터 1660년까지 1, 2차 중창을 통해 복원했다. 1988년 보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담대종사 54주기 추모다례재 열려

1월 26일 불곡사 관음전서 봉행


창원 불곡사 우담문중회는 1월 26일 불곡사에서 '우담대종사 5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창원 불곡사 우담문중회는 1월 26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우담대종사 5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이사장 도홍 스님, 우담문도회 근파 스님, 선파 스님, 교육원장 능산 스님, 불령사 영암 스님, 팔봉암 범산 스님, 취봉장학회 묵암 스님 등 20여 스님, 이성품화 신도회장, 보리수합창단, 세음다회 및 임원진이 동참했다.

행사는 타종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삼귀의, 천수경, 상단권공(축원), 우담대종사 행장소개 및 환영사, 추모사, 추모곡 및 헌다, 종사영반, 헌다 및 헌화, 헌시(신도회장 이성품화), 격려사, 배송의식,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우담문도회 이사장 도홍 스님은 환영사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많은 스님과 임원진 참석에 감사드린다"며 "2021년 총회에서 본사 불곡사에서 재를 지내기로 결정, 오늘 54주기 다례재부터 본사서 지내게 됐다.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선파 스님은 격려사로 "추모 다례재를 본사 불곡사에서 모심에 임원진과 사부대중의 감회가 깊다. 매년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 재를 지내고 정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능산 스님은 격려사로 "우담 스님 문도들이 대대손손 불곡사에서 대례재를 올리게 되어 감사하며 합창단과 다도회 관음회에서도 늘 함께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담대종사는 1882년 밀양시 삼랑진읍 청용동에서 태어나 11세인 1892년 모친의 인도로 창원 불모산 성주사에 웅파 스님의 법손인 인봉 스님을 은사로 입사했다. 1917년 고성 옥천사 강원 사교과 수료 당시, 강사 일우 박만선 스님으로부터 어산염불에 매진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스님은 1930년 불곡사를 재창건하고 이때부터 범음범패 어산염불을 적극적으로 정립했다. 1940년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대덕법계를 수했고, 1946년 장유암 주지로 취임했다. 1952년 종사법계를 수했고, 1955년 웅파종문회 재창립 산중대회를 장유암에서 개최하면서 장유암을 본사로 선언했다. 이후 1960년 불모산 성주사 주지로 취임했다. 1962년 불모산 영산재 학원을 개설하고 범음 범패승 양성배출에 나서 금해 · 명해 · 은파 · 근파 스님 등 많은 범패승이 배출되었다. 스님은 1968년 진해 성도사를 창건하고 안거 중 세납 87세, 법납 77세로 입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일광사 '자비의 백미나눔' 귀감

1월 25일 설 명절 앞두고 정읍시청에 전달


정읍일광사는 1월 25일 정읍시청에서 자비의 쌀 전달 등 설맞이 소외계층 돕기를 진행했다.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일광사 연꽃신도회(회장 유상분)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은 1월 25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승천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군산 염불사 주지 혜윤 스님, 군산 도안사 주지 명현 스님 등 스님들과 유진섭 정읍시장 등 정읍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승천 스님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며 꿈과 희망을 잃지않고 용기를 주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고문도 역임하고 있는 승천 스님은 1월 19일 수용자들을 위해 과일과 떡 1400명 분을 전주교도소 김남주 소장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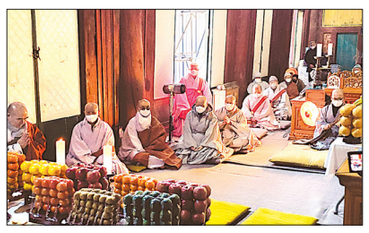
한편, 승천 스님은 1985년 일광사에 부임한 후 신도회를 활성화하고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해외구호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하연 승가회를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지원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또 부처님오신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34년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성원대종사 40주기 추모재 봉행

대종사 유지 이어 수행정진 다짐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1월 21일 근대 한국불교 대강백인 운기당 성원대종사 4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재에 참석한 스님들은 성원대종사 유지를 이어 수행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혜산 스님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참석해 준 문도스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추모재 후에는 전강식도 봉행됐다. 전강스승인 재선 스님은 전강제자 도해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법호는 활청.

재선 스님은 "석전 대종사와 운기 대선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화엄종주 설파, 백파, 설유, 영호의 교지를 계승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승가 의료비 1200만원 지원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부설(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1월 19일과 1월 25일 제7,8차 승보공양을 진행했다.〈사진〉

빛고을나눔나무에서 진행하는 승보공양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스님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총 1,200만원이 전달됐다.

이번 승보공양은 나주 문성암에 주석중인 지궁 스님과 담양 용흥사에 있는 혜담 스님에게 각 600만원씩(매월 50만원, 12개월)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도성 스님, 중현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등이 참여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료에 전념 중인 두 스님을 격려했다.

도성 스님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음을 굳건히 해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합천 해인사와 코끼리행복복지센터 자비나눔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월 26일부터 27일 이틀에 걸쳐 합천군 관내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 봉산면 지역 주민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 어르신, 복지센터 종사자 등 총 800여 명에게 떡국떡(1가구당 1kg 개별 진공포장)을 전달했다.〈사진〉

해인사와 코끼리행복복지센터의 '설날맞이 자비나눔행사' 에서는 스님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감사와 위로, 격려 덕담과 함께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수혜 대상은 1월 26일 가야 257명, 봉산 148명, 1월 27일 야로 180명, 묘산 167명 등 총 800명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양사 대웅보전 불상 후불탱화 점안식



울산 백양사는 1월 25일 대웅보전에서 통도사 보살선원장 천진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통도사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이 집전한 가운데 석가모니불, 좌우협시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개금불사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점안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월봉사 주지 보화 스님 등 지역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코로나와 더불어 어려움이 많은 요즘이지만 사부대중의 관심과 협조 속에 산신각에 이어 개금불사까지 회향함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남은 큰 불사들도 기도정진하며 성심성의껏 잘 회향하겠다"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회장 취임 및 정기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1월 22일 대성사 제22대 조현대 신도회장 취임 및 2월 정기법회를 경내 서원장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개회선언과 함께 육법공양, 집회가, 삼귀의례,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국운융성기원에 이어 신도회장 임명장과 축하 꽃다발 전달이 있었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반백년 역사를 같이한 역대 주지 스님과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소임자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신심을 바탕으로 한 임원들과 함께 정진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편안하게 하는 천태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 무등산 원효사 쌀나누기



광주 원효사(주지 해청)는 1월 26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백미 1,000kg을 설 명절을 맞이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사진〉

청장실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도성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해청 스님을 비롯해 원효사 신도대표 등이 참여, 뜻을 함께했다.

전달식에서 해청 스님은 "신도들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마련한 쌀이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